

총효·환경등 불교사상 반영 미흡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이 제 6차 교과과정 개편이후 양적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환경문제, 효사상, 직장윤리, 뇌사, 장기이식 등에 대한 불교적인 인용이 없어 교과 대책위원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13일 전국교과서단 장립 5주년 기념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에 관한 고찰'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중학교 '중학교 새 도덕교과서에 기술된 종교·사상의 비교'를 분석한 채성만 교보사(광동중)는 새 도덕교과서에서 동·서양의 종교·사상 내용의 수록은 동양이 34회 서양이 6회로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양사상내용중 불교가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윤교사상의 인용이 22회인데 비해 불교는 5회로 기독교 서양사상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윤교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속오교, 생명존중사상, 평화애호, 호국불교사상, 부모은중경중 불교의 도덕적 교리가 우리민족에게 습화된 내용이 유교에 비해 월등함에도 애국, 효도, 심신수양, 자연존중사상이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사상으로 단정하고 이런 가치들이 유교와 도교의 전유물인 듯한 인상을 심어줘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중도덕·고윤리교과서 불교내용 분석

이와함께 현대사회와 시민윤리들은 기독교의 예정설에 바탕을 두어 설명하고 있으며 서구의 시민혁명과 종교개혁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생각케 했으며 서구사상이 현대의 근검절약과 기업정신에 어바지했다고 기술하고 있어 동양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물면에서도 부처님은 제1단원 '삶과 도덕'에 수록하여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 한정하고

있고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억불정책이후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불교 자체가 온건적, 소극적 종교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채성만교보사는 "불교사상의 실천적 측면을 부각, 인지할 수 있는 학문연구와 교계대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불교사상의 개인 윤리적 측면뿐 아니라 대사회적 적극성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균형잡힌 도덕교육과정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처님 생애 외전... 동양사상 유교중심 집필

교리 해석 불충분... 신라 팔관회 도교행사로

정확한 기술·내용보완 위해 교계차원 관심 절실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집을 떠났다'고 기술하는 등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교에 문외한 학생들에게는 불교교리가 적극적인 사회참여에도 불구, 열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며 소극적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를 비쳐지는 불교교리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또 불교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을 윤리적 입장으로 정립하고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의 지도를 위한 고찰'에서 고우익교보사(동대부중)는 구교과서에서는 불교관련 내용이 1백42행인데 비해 새교과서는 2백36행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오히려 난해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불교의 팔관제(八關齋) 정신을 국민윤리적 차원으로 확대한 신라시대부터 중요한 의식이었던 팔관회를 일방적으로 도교행사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리의 현대적 해석과 풀이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空, 和靜, 中道 등의 간략한 표현은 불교의 난해한

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불교의 다양한 교설이 많은 가정·직장·시민생활, 뇌사·장기이식·생명의료윤리 등에 불교의 배제도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오늘날의 환경운동들이고 서양의 환경이론가들이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의거 이론을 정립하고 있음에도 교과서에서는 도가사상만 다루고 있으며, 국가이론도 동양의 대표적 국가이론으로 도가, 법가, 유가의 이론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孝)도 불교의 효사상은 거론이 없으며 정치이론도 불교의 전통성왕등 정치이론은 빠진채 공자의 道徳정치, 맹자의 王道정치, 순자의 禮治정치, 노자의 小國寡民사상만을 소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직업윤리의 경우 "직업에 충실한 것이 바로 신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 그러므로 직업은 소명이며..."라 하며 3~4차례에 걸쳐 신의 부르심 등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통사상을 강조하는 윤리교과서의 일관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원우 기자

시론

조상모시기와 다비

광복되기 전이나 무척 오래된 얘기가. 같은 또래 친구들과 가벼운 차림으로 서울 교외로 산책을 나섰다. 모처럼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어 먼지나는 큰길을 버리고, 야산 모퉁이를 돌아 서는데, 웬 새 자전거가 길가에 세워져 있기에 아직 20대라 장난기로 우리 훌쩍쳐 번갈아 타고 가지는 등 상거운 손가락을 세워서 앞에 대고 뒤돌아본다. 다음 순간 우리는 숙연해졌다.

산소와 대화해온 거러

잔 술사이의 남피락한 산소를 깨끗하게 벌초(伐草)하고 소화교를 갖출업했을 연배의 소년아 풀이났는 것이다. 봄에는 일본 옷을 입고 감색으로 물들인 앞치마를 두른 수가, 일본인 점포에서 고용살이하는 모양이다. 양손을 깎지껴 합장하고 앉았는 그의 눈은 꼭 감겨진채 꿈쩍을 않는다.

"어머니?—아니면 아버지—반드시 남 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보여 드리오리라."

그런 중얼거림이 귓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런지 오륙년만에 광복을 맞았는데, 그때 그 소년은 어찌 되었는지? 고용살이하던 일본인 업체를 인수받아 성공하였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 산소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한번은 고향 가까운 곳에,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을 남긴 학자님의 초라한 산소가 있던 것이 생각나 찾아 나섰다.

그리 그대도 있다면, 고장에 알려 기념사업이라도 펼쳐서 그런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내리 뛰고 치 더듬어도 흔적 없다. 이만치 내려와 삼거리에서 알만한 사람을 만나 물었다. "자손이 이민가면서 화장해 없었지 뭐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허탈하기라니...

"재미가 깨가 쏘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농촌에 가면 집뒤에 종종종 산소가 있어, 칠월이면 애들 데리고 올라가 금초하고, 밭에서 잡개를 베어오면 주저리를 묶어 그 앞으로 줄지워 세웠었다. 그러다가 누렇게 색이 변하며 송이가 벌면, 흙이불을 내다 펴고 둘러앉아, 그들을 가져다 거꾸로 들고 막대기로 툭툭 두드려서 편다. 그때 술술술 술이 쏟아지는 그 재미라니...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게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깨가 쏘아진다'고 했을까?

벼타작을 하고 나면 벼짚을 산소제일에 펴고 분봉까지 덮어 넣고는 황금 옷을 입으셨다며 웃기도 하였다. 나의 소작을 하다가 처음으로 눈을 사 첫 수

확을 거뒀을 때, 추석날 거시기 난 램살로 송편을 빚어 올리고 할아버지는 감격해 눈물을 비치기까지 하셨다.

지금 명절이면 민족의 대이동이라 표현할 정도로 귀성객·성묘객으로 길이 꽉 막힌다. 그런데 절 밭 밭이던대로, 농촌을 지키시던 그 어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산소는 누가 돌보며 누굴 뵈오리고 고향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어른을 모시고 얘기를 들듯 조상 산소와 대화하며 살아왔지만 언제까지나 이대로 지켜갈 수는 없는 일이다.

온화한 기후와 기름진 농토의 혜택을 받아, 우리는 실로 오랜동안을 이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다. 지정의(知情意) 세 분야에서 정에 무른 때문에, 정에서 우리나라는 마음씨대로 살면 되는 도덕률도 지상의 낙토다. 우리가 일상에 미안(未安)하다는 말을 흔히 하는데, 미안이란 마음에 편편치 않다는 얘기로, 편편치 않은 그 마음은 양심이다. 우리 고유의 하느님 마음씨로 부처님의 뜻이다.

효심은 남다른 것만 이민가면서 산소를 욱되게 할 수 없어서 차리리소(燒)해 없앤 심정을 우리는 이해한다.

길을 가다 '차선'을 지키자고 한 표지판(標識板: 표식이 아니다)을 보고 나는 웃는다. 차선(車線)은 물론 차 다니는 길이지만 차선(女善)도 된다. 최선(最善)은 못되지만 그 다음은 되는 것을 말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현실에 맞게 또 미안하지 않게 차선을 지키는 길은 없는 것일까?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호화묘를 꾸미는 특권 의식은 오히려 조상을 욱되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여러해만에 유학길에서 돌아온 손자에서 '할아버지 산소? 그런 거 없애버렸다' 하기도 딱한 노릇이다.

그래서 '나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집안에서 고조부모까지만 제사지내고 그 이상은 산으로 가 시향(時享)을 모시는데, 위토(位土)마련이 없는 산소는 없앤다. 금방 돌아가신 분을 불어 넣기가 미안하거나, 가매장했다가 눈물이나 마르거든 돌구어 다비(茶毘)해서 한 분상에 모셔놓고, 수호와 치장에는 정성을 쏟아, 자라는 아이들 교육에도 활용하자.

다음 세대 일은 너희끼리 알아 상의 해서 미안하지 않게 하면, 일단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나는 보려다.

협찬: 이경민

"동국대 발전 곧 한국불교 발전"

동국대 개교 90돌 행사 확정 발표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9일 동국 발전을 위해 황해대탐사, 세계불교학술회의, 국악음악제 등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를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황해대탐사는 5월10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절강성을 출발해 흑산도, 고군산반도를 거쳐 인천까지 총 1천200km를 땃목을 이용 해양생태계를 조사

를 원한히 개최해 동국발전의 기록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일산 제3캠퍼스 건립, 영경원 및 정문신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90돌 개교기념 주요행사

행 사 명	일 지	장 소
경주캠퍼스 범종타종식 4·19기년 동년대회	4.17 4.20 4.18	경주캠퍼스 종각 북한산(서울) 경주남산(경주)
개교기념식	5.7	학술문화관
KBS 열린음악회	5.7	대우동장
중국민속공연전 수계식	5.6~5.17 5.14	학술문화관 정각원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음악제	5.15	KBS홀
비전동국100년후원회발	5.29	일문호텔 컨벤션홀
불교학술회의	5.17	학술문화관
분당한방병원 개원	5.8	(예정)
동국불교미인회 전시회	6.19~6.25	공평아트홀
연대불교미술 전시회	5~5.31	학술문화관
동국 건축전	5.20~5.23	인공관
경주남산살리기 실천대회	5.26	경주남산
황해문화대탐사	5.10~5.26	중국강성~인천
세계불교학술회의	10.24~25	학술문화관
한국문화학술회의	9.19~20	학술문화관
국악대음악제	10	(장소미정)
비전! 동국100년후원회발	9.11	경주 콘서트홀

뜻목 황해대탐사 세계 학술회의 중국 민속공연전

하게 된다. 또 2학기 행사로 개최되는 세계불교학술회의는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회에서 개최한다.

이날 송석구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국발전이 곧 한국불교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교 90주년 기념사업

인터넷에 "부처님 오셨네"

본사 부다피아 18일부터 각종 봉축행사 실시간 서비스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각종 봉축행사 전반을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본사 전략정보기술팀과 봉축기획단·불교문화원이 협의체제를 구축해 만든 '불기 2540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올 부처님 오신날 기념 회장에 대한 소개와 각 행사의 의미를 비롯 봉축행사 전반을 일정별로 안내하는 이 홈페이지는 매일매일의 행사를 점검하고 행사 결과와 새로운 소식들도 리얼타임서비스 제제로 운영, 신

속한 봉축행사 안내를 한다.

부다피아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주된 내용은 봉축법요식, 연등축제, 시청앞 점등식, 원각사지 탐방을 비롯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이며 제공된 내용은 년간지속,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상의 부다피아로 들어가 '불기 2540 봉축행사안내' 홈페이지를 찾아 각 안내 서비스 항목을 열람하면 된다.

부다피아 봉축안내 홈페이지 <http://www.buddhapia.co.kr/Bongchuk>

생활 속의 불교 70

내가 곧 진리요 길이니 어찌 어렵다 하라

가 르침에는 선문(禪門)과 교문(敎門)이 있다.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말의 방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교문이 선다. 반면에 말이나 문자에 얽매이면 자연히 관념의 세계-알음알이가 따르게 되니 선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불성이다. 진여다. 부처다. 여래다 등등의 이름을 붙여 놓고서 한편으로 이를 다시 부정한다.

이름 붙임은 교문의 부득이한 일이다. 이를 부정함은 선문의 부득이한 일이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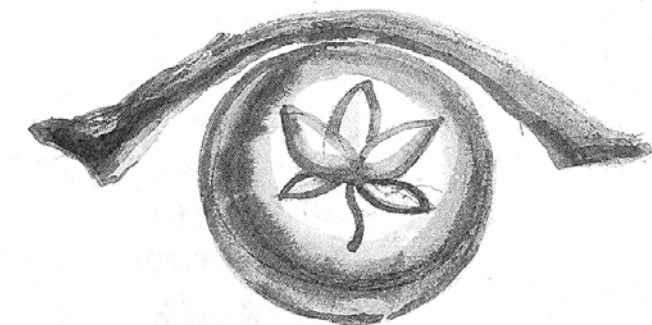
법에는 불구부정, 불생불멸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인연따라 나두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이 있다. 하나는 절대 세계를 이름이요 다른 하나는 상대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진여의 법과 생멸의 법은 엄연히 달라 보인다. 중생이 바라보는 눈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불어의 법에 이르른 둘은 같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불법이 뭐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 사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비논리적인 까닭은 교문으로 들어온 이를 선문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요, 생멸법의 갖대로 분별 사랑하는 것을 깨뜨려 진여법에 눈 뜨게 하기 위함이다.

가령 불법이 뭐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스승이 불법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자상하게 일러줬다고 하자. 그러면 답을 들은 이는 '아하, 불법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지 스승의 세계가 아니다.

보고 듣는 감각 작용이 분별에 의지하는 한, 호랑이가 고양이로, 고양이가 호랑이로 둔갑하기 마련이다. 우리들의 일상이 시비·논쟁·주장·분별·가치 판단 따위로 가득 찬 것 자체가 그 점을 대변한다. 그러기에 불법은 끝내 언



어도단에 부딪힌다. 그래서 불교는 또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기가 세수하듯 만지기 만큼 쉽고 말하는 선사도 있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짐짓 억설로 그런 것이 아니다. 불법 공부란 바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느냐는 말 씀이다.

생멸의 법도 네 살림 속에 있고 진여의 법도 네게 있으니 자신을 밝히면 그것이 곧 불법이요, 불법 공부의 전부라 되고 생멸법 진여법이 다 '나의 것'인 즉 '나' 이외에 따로 법이 의지할 곳은 없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지처는 너뿐'이라는 자등명(自燈明)을 이름이다. 따라서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함께 하니 중생은 모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불법 공

부는 바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니 내가 화두요 나의 생활이 곧 참선의 도량이다. 따라서 불법 공부하는 스승이 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마치는 공부다. 어렵다고 푸념할 까닭이 없다.

요컨대 자기를 돌아보미 핵심이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고작해야 시비분별만 잡초처럼 일어날 뿐 몇 생을 거듭해도 불법을 알 수는 없다. 알고자 한다면 안으로 눈을 돌려 자신을 보라. 보되 날밭이 보라. 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 또 보라.

'불법이 뭐니까'의 답은 그곳에 있다. 교문도 선문도 그곳에 있다. 생멸법 진여법도 그곳에 있다. '나'는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자등명인 불법공부는 쉽다. 새록새록 맛이 있다.